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The Expectation and the Performance on the Housework Socialization of Rural Homemakers

원광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정은미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채옥희

Dept. of Home Economics,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 Eun-Mi, Jeong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Prof. : Ock-Hi, Chae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관련연구의 고찰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general degree of expectation and performance of the housework socialization of rural homemakers, to investigate their relationships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performance of housework socialization in relation to the expectation of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Rural homemakers' housework socialization score is the upper medium range.
2. The performance of housework socialization was somewhat affected by variables such as the education of homemakers, types of farm, years of residence in rural area, yearly income and employment of homemakers.
3. The expectation of housework socializa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variables such as the education of homemakers, types of farm and yearly income.
4. The expectation of housework socializ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of grouped, the utilization of commodities and the utilization of household equipment, as subdomains of the performance on the housework socialization.

I. 서론

농촌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소인수화되는 경향이고 청·장년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농현상으로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력의 노령화·여성화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농촌주부의 역할과중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과거 농업 보조자이던 여성의 농업노동의 비중을 가중시켰으며, 농촌주부들은 가사담당자 역할과 농업 활동자 역할, 기타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 활동자 및 지역사회 활동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중역할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도시보다 가부장적 전통문화와 남성중심의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여성의 역할확대나 생산노동에 기여도가 농촌여성의 지위나 권리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한경미, 1997a) 농촌주부의 전체 노동시간은 과중한 상태이다. 더욱이 가사노동은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여자가 거의 담당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때 별 진전이 없다(박선화·채옥희, 1996). 이로 인해 농촌주부의 대부분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지만, 농업활동을 가사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여 가사활동보다 농업활동 시간을 우선 배치하므로 가사활동에 시간제약을 느끼고 있다(구혜령 외, 1996). 또한 과거에 비해 농촌가정의 의식주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도시에 비하면 크게 낙후된 수준이고, 농민들의 주관적 만족도는 지역사회와 가정환경에서 실제 조건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한경미, 1997b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농촌주부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47.7%로 미국 94.3%, 프랑스 88%, 일본 7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경향신문, 1999).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농촌주부들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병행, 과중한 노동시간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농촌주부의 과중한 역할부담을 줄이고,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을 해소시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 사회화하고 있는지 가사노동 사회화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농촌주부가 가사노동 절감을 위해 기대하는 가사노동 사회화는 무엇인지 조사함으로써 농촌가정의 가사노동 해결을 위한 방안, 그리고 농촌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화의 방향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관련연구의 고찰

1. 농촌 사회의 변화

농촌사회는 가족구조의 소인수화, 고령화, 여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여성의 노동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총인구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7.6%에서 1998년 10.3%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동일기간에 17.8%에서 30.5%로 급증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통계상으로 현재 한국 농촌 인구의 절반이 여성들이며 최근 농가인구 가운데 여성인구의 비율은 1995년 51.1%에서 1998년 51.6%로 다소 증가하였다(농림부, 1995; 통계청, 1999; 한국여성개발원, 1999). 이러한 농촌의 변화는 개별 농가의 노동력 부족의 압력을 심화시키고, 노동력의 부족은 다시 여성들의 농업생산 참여를 요구하게 되어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농촌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90년 전체 60.0% 중에서 47.0%이고, 1993년 전체 61.0% 중에서 47.2%로 농가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율이 61.1%로 비농가여성 44.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한경미, 1997b).

농촌부녀자의 연중 평균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면 1993년 농촌 주부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에 12시간 44분, 농한기에 7시간 42분으로 농번기와 농한기의 차이가 뚜렷하며, 이 중에서 농업노동 시간은 농번기에 8시간 24분으로 가사노동 시간 2시간 12분의 4배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노동 시간은 농한기에 5시간 30분, 농번기에 4시간 34분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농촌진흥청, 1994). 반면 1979년부터 1995년까지 농업노동시간의 추이를 분석한 한경미(1997b)의 연구에서는 농한기의 노동시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농번기와 농한기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이 구분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농촌주부들은 농촌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농사일과 가사일을 꼽았는데, 영농의 기계화가 많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농업노동시간의 감소에서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한경미, 1997b), 남편과 가족들의 가사작업 부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농촌주부들의 노동강도 및 노동시간이 더욱 증가된 데 원인이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인 농촌사회의 변화는 농촌주부들의 가치 및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으나 농촌사회는 아직도 성에 따른 역할분담이나 가부장제의 전통적 가치관이 진하게 남아 있어 가정내의 일은 주부가 일차적 책임을 맡은 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가사노동은 생산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의 성격과 반복적인 작업특성 때문에 가사노동의 생산적 특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홀하게 인식되어 실제로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중에서 가사노동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농업노동 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중한 농업노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사노동이 줄어드는 것은 농촌생활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농번기에 농촌주부들을 도울 수 있는 가사노동 사회화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사노동 사회화 유형

가사노동이란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활동들로서 가사노동이 가지는 대체가능성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가 나타난다.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Ried의 가계생산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되어 Egner, Fisher, 大森和子, 關志比子, 竹中, 이기영, 문숙재 등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들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가사노동 사회화를 산업노동에 의한 대체와 공적노동에 의한 대체로 본 연구(송영미, 1992; 윤영희·박미석, 1997)와 산업노동에 의한 대체 즉, 영리적 사회화만을 가사노동 사회화의 범주에 포함시켜 본 연구(이은주, 1991; 이기영·구혜령, 199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송영미(1992)는 가사노동 사회화를 가정내의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정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등 가정외부의 영리적 부문으로 이양되어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시장상품 및 유급용역 대체로 한정하여 상품화, 기계화, 서비스화로 구분하였다. 또한 윤영희·박미석(1997)은 가족원의 생명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정의 기능이 가정 밖으로 이전되어 가정외부의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 처리되는 것이며, 산업노동에 의한 대체, 공적노동에 의한 대체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후자의 입장을 취한 이기영·구혜령(1997)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서의 시장재의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가사노동의 대체에 초점을 두고 가사노동 사회화를 가정 밖으로의 가사노동 전이나 가사노동 분해의 효과를 갖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의한 영리적 사회화로 보았다. 또한 채옥희(1991)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유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상품화, 집단화, 기계화, 용역화의 4영역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

산과정이 가정의 외부 즉 사회로 이양되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 및 용역을 사기업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처리 하는 것을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정의하고, 그 유형은 농촌실정을 고려하여 집단화, 상품화, 기계화의 하위영역으로 보았으며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화

가사노동의 집단화는 가정내 생산과정을 사회적으로 조직된 기구가 담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채옥희, 1991). 즉 식당에서 음식을 사거나 주문하는 것, 옷을 수선하거나 드라이클리닝을 위해 세탁소 등을 이용하는 것, 백일·돌·회갑연 등에 출장 음식을 이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것 등을 집단화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증연구에서 보면, 식당이나 세탁소, 옷수선집의 이용은 대체로 외식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농촌가정에 있어 외식은 '한달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가 95.0%, '한달에 2번이상'이 45%로 전체적으로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도시가정은 1개월에 1-2회 이상 가족단위의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이고(김귀란, 1991),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양복을 다리는 일은 세탁소에, 70% 이상이 단고치기, 지퍼바퀴달기 등은 수선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미숙, 1990; 이은주, 1991). 또한 가전제품의 고장수리, 도배와 설비 등의 사회화는 높게 나타났다(정지영, 1991).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가사보조자와는 다르지만 청소 대행업체가 있어 가정내 청소를 영리업체에서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식생활에 있어서도 테이크아웃(포장)요리가 식탁의 46%를 차지하고 있다(세계일보, 2000).

이상에서 볼 때 도시가정의 집단화는 상당수준 보편화되고 있으나 농촌은 빠른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의 대부분이 가정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농촌 주변에 사

회화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농번기를 대비한 식생활의 마을공동화, 공동세탁장과 같은 가사노동 집단화의 시설이 요구된다.

2) 상품화

산업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상품생산 영역이 확대되면서 종래 가정 내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 중 많은 부분이 산업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의해 대체되거나 경감되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상품화는 가사노동을 집약시키고,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대중화시켜 누구나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외래 즉석식품 등의 범람으로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 대한 기호가 점차 증가하고(이은주, 1991에서 재인용), 사회구조가 개인화·산업화됨에 따라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가정의 식사보다는 외식업체를 이용한 식사, 학교 급식이 많이 증가하고, 아침·점심은 밥 대신에 국수, 빵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백유진, 1994). 그러나 여전히 레토르트나 냉동식품과 같은 편의식품의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허성미, 1994) 밑반찬이나 부침 등의 반찬류나 반조리 식품의 구입 역시 저조한 편이다(이기영·구혜령, 1999에서 재인용). 더욱이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의 저장식품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향은 아직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응답자의 20%정도가 된장 등의 장을 시장에서 구입한다는 김귀란(1991)의 연구와 김치는 장류보다 더 낮은 비율(2%)을 보인 우경옥(1991)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의 감소를 위한 통조림, 구이 김 등의 식품보다는 아이들의 기호에 맞는 과자나 라면 등의 소비만 높게 나타났다(윤소영, 1990). 이와 같이 식생활 영역의 사회화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 주부들이 음식은 주부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정지영, 1991). 반면 의복제작과 관련된 가사노동은 거의 대부분 상품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출복 구매가 93.9%를 넘어선다(이기영, 1987).

이상에서 볼 때, 농촌주부들도 의생활에서는 기성품을 이용한 의복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식생활 부문에서 고추장, 된장이나 김치 등의 저장식품은 아직도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식생활의 개선이나 질 좋은 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3) 기계화

가사노동의 기계화는 편리한 가전제품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사람의 힘으로 수행되었던 가사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청소기, 세탁기, 전기밥솥, 식기 세척기 등을 이용함으로써 신체적 손상을 막고 가사노동을 단축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농촌가정의 경우, 가사편의를 위한 기기의 보유정도는 다른 생활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지만(김인숙·최은숙, 1993),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의 보유비율과 사용빈도는 높게 나타났다(김혜경 외, 1990; 윤소영, 1990; 조성은, 1990) 그러나 기계화는 기기유지, 관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과제수의 빈번함으로 기대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사노동 부담을 더해줌으로(이정우·이미선, 1995에서 재인용) 반드시 가사노동을 절감시켜 주지만은 않는다. 그러나 가정기기의 긍정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 농촌의 실정으로서 70년대 이후 냉장고나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졌으나, 전자레인지나 다른 기기들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및 기대수준을 각각 범주화하였고 가사노동 사회화의 하위영역을 집단화, 상품화, 기계화 변수

로 구분하였다.

1)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척도는 채옥희(1991), 송영미(1992), 백유진(1994), 박봉순(1995)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는 집단화 15문항, 상품화 14문항, 기계화 20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집단화 척도는 세탁소·옷수선집 이용, 농번기 새참이나 그 외 식생활에서의 배달서비스 이용, 집안의 수리·보수 및 가전제품의 수리를 위해 기술자 이용, 놀이방·유치원의 이용, 노인정· 경로당의 이용에 관한 문항으로,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이용한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집단화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alpha=.64$)

상품화 척도로는 의류 및 수예품의 마련방법과 반조리 식품 및 장류의 마련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품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alpha=.75$) 기계화 척도는 가정기기의 보유정도에 관한 10문항과 보유기기에 대한 사용빈도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기기를 보유한 경우,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기계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lpha=.79$)

2)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는 농촌주부로 하여금 앞으로의 가사노동 방향에 초점을 두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척도는 채옥희(1991)의 연구를 기초로 만들었으며, 총 15문항이고 '적극반대' 1점에서 '적극 찬성'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alpha=.60$)

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30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에 내용기제가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낮

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75부를 통계에 이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 신뢰도분석, t-Test, One-way ANOVA(사후검증법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을 적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연 령	39세 이하	68	24.7
	40-49세	162	58.9
	50세 이상	45	16.4
	전 체	275	100.0
자녀수	1명-2명	36	13.1
	3명	126	45.8
	4명 이상	113	41.1
	전 체	275	100.0
농촌 거주년수	15년 이하	121	44.0
	16 - 35년	88	32.0
	36년 이상	66	24.0
	전 체	275	100.0
연간 농가소득	1,000만원 미만	120	43.6
	1,000-2,999만원	110	40.0
	3,000만원 이상	45	16.4
	전 체	275	100.0
직업유무	있다	142	51.6
	없다	133	48.4
	전 체	275	100.0
농업여부	농가	159	57.8
	비농가	116	42.2
	전 체	275	100.0
교육수준	중학교졸업 이하	154	56.0
	고등학교졸업 이상	121	44.0
	전 체	275	100.0
가족형태	핵가족	188	68.4
	확대가족	87	31.6
	전 체	275	100.0

IV. 결과 및 해석

1.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의 전반적 경향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기대는 <표 2>와 같다.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는 5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2.97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가 주부 집단에서 가사노동 사회화 평균이 3.03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가사노동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품화가 평균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기계화(평균 3.06), 집단화(평균 2.4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화 실태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농촌이 도시와 달리 지역적으로 시장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가능성이 낮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품화 실태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일상적으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의생활 영역의 상품화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송영미(1992)의 연구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그에 비해 가정기기는 대부분 고가이고 소유를 위해서는 소득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생활에 필요한 전기밥솥이나 냉장고와 같은 기기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수준은 평균 2.39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주부 집단은 평균 2.33으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대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 사회화의 하위영역별로는 기계화에 대한 기대가 평균 2.70으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상품화(평균 2.48), 집단화(평균 1.98)순으로 나타나 집단화에 대한 기대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농촌은 지역환경이 열악하여 사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더욱이 농촌주부들이 가사노동을 합리화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표 2〉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수준

(N=275)

구 분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				
	집단화	상품화	기계화	전체	집단화	상품화	기계화	전체	
농 가	2.38	3.36	2.99	2.92	1.89	2.43	2.65	2.33	
비농가	2.47	3.48	3.15	3.03	2.12	2.54	2.77	2.47	
합 계	평균	2.42	3.41	3.06	2.97	1.98	2.48	2.70	2.39
	표준편차	0.54	0.57	0.66	0.41	0.70	0.58	0.79	0.53

기대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는 〈표 3〉과 같이 농촌거주년수, 연간농가소득, 직업유무, 농업여부 및 교육수준과 같은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농촌에 거주한 기간이 짧고, 연간 농가소득이 많으며,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고졸이상의 주부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교육수준이나 다른 직업의 유무, 연간농가소득 등은 소득수준과 관련있는 변인들로서 농촌주부들의 가사노동 사회화는 선행 연구(이기영, 1987; 이미숙, 1990; 정지영, 1991)에서와 같이 소득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가정은 농업에 종사하므로 소득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비전문직에 종사하므로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기보다는 사회화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부들이 직접 가사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가 낮다고 보여진다.

반면 주부의 연령, 자녀수, 가족형태와 같은 변인들은 유의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정연주, 1987; 문숙재·홍성희, 1988; 이기영, 이기춘 외, 1989; 백유진, 1994)에서 연령은 가사노동 사회화와 부적인 관계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의 편리함과 시간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가공식품과 즉석식품, 배달서비스와 같은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어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집단화 실태는 농촌거주년수, 연간농가소득, 직업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농촌거주년수가 짧을수록, 연간농가소득이 많을수록, 직업이 있는, 고졸이상의 주부들이 식당이나 배달서비스, 세탁소 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급식 및 노인을 위한 경로당, 노인정의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주부의 집단화 실태는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집단화 시설인 세탁소나 식당 등이 미비하고, 그것들을 이용하기에 지역간 거리가 먼 등의 생활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상품화 실태에 있어 유의한 변인은 연령, 연간농가소득, 직업유무 및 가족형태로서 연령이 40대인 집단, 연간농가소득이 많은 집단, 농업외 다른 직업을 가진 집단 그리고 핵가족 집단인 경우에 상품화 실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없을 때, 수입이 적을 때 가공식품의 이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영인·김기숙(1992)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득은 가사노동 사회화의 중요한 변수로써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식 및 배달서비스, 의류, 세탁소 및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고, 주생활의 사회화 역시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정연주, 1987; 이기영, 1987; 문숙재·정지영, 1991; 백유진, 1994)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구 분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집 단 화			상 품 화			기 계 화			전 체		
		M	F/t	DMR	M	F/t	DMR	M	F/t	DMR	M	F/t	DMR
연 령	39세 이하	2.36			3.28			2.97			2.88		
	40-49세	2.41	1.42		3.47	2.61*	A	3.13	2.32*	A	3.00	1.88	
	50세 이상	2.53			3.41		A	2.92		A	2.98		
자녀수	1-2명	2.49			3.31			2.98			2.92		
	3명	2.40	0.38		3.41	0.72		3.11	0.90		2.99	0.29	
	4명 이상	2.42			3.45			3.01			2.97		
농촌 거주 년수	15년 이하	2.52	3.77**	A	3.42	0.17		3.16	3.66**	A	3.05	4.92**	A
	16-35년	2.38	**	AB	3.42			2.99	**	AB	2.93	**	AB
	36년 이상	2.30		B	3.37			2.89		B	2.85		B
연간 농가 소득	1,000만원 미만	2.26	11.76***	A	3.29	4.81***	A	2.84	25.87***	A	2.79	26.66***	A
	1,000-2,999만원	2.48	***	B	3.51	***	B	3.06	***	B	3.03	***	B
	3,000만원 이상	2.68		C	3.50		B	3.62		C	3.27		C
직업 유무	있다	2.47	1.74*		3.51	3.15***		3.12	1.60		3.04	2.88	
	없다	2.36	*		3.29	***		2.99			2.89	***	
농업 여부	농가	2.38	-1.34		3.36	-1.64		2.99	-1.96*		2.92	-2.22**	
	비농가	2.47			3.48			3.15	*		3.03	**	
교육 수준	중학교졸업 이하	2.33	-3.06***		3.39	-0.84		2.93	-3.48***		2.89	-3.44***	
	고등학교졸업 이상	2.53	***		3.44			3.21	***		3.06	***	
가족 형태	핵가족	2.40	-0.70		3.46	2.27**		3.06	0.05		2.98	0.87	
	확대가족	2.45			3.30	**		3.05			2.94		

* p<.10, ** p<.05, *** p<.01

DM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주부의 교육수준, 자녀수, 농업여부, 농촌거주년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노동 사회화의 하위영역인 기계화 실태는 주부의 연령, 농촌거주년수, 연간농가소득, 농업여부,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40대 주부이면서 농촌거주년수가 짧고, 연간농가소득이 많으며 고졸 이상의 비농가 주부일수록 가사노동 기계화가 더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보다 많이 보유하고(이기영, 198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계의 작동이나 조작 방법을 잘 알고 관심이 많으므로 기계화 실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는 〈표 4〉와 같이 주부의 연령, 연간농가소득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40대-50대 이상인 집단에서, 연간농가소득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려는 기대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촌은 고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사회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농촌노인은 대부분 빈곤 계층이 많으므로 또 다른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가사노동 사회화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집단화 기대는 연간농가소득과 농업여부만이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즉 연간농가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비농가 주부들이 가정외부의 식당이나 세탁소 등을 좀더 이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에 있어서는 신체적 노쇠로 인한 가사노동 대안으로 자녀의 지원, 가정봉사원, 국가나 사회의 지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주부의 집단화에 대한 기대가 외부용역뿐 아니라 전문화된 공격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가정의 소득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상품화에 대한 기대는 연간농가소득, 직업유무, 교육수준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상품화 기대는 연간농가소득이 많을수록,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 고졸이상일수록 김치 등의 저장식품 및 식생활 용품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유무와 교육수준이 소득수준과 직접 관련되므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고, 또 가정생활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더 추구한다는 이은주(1991) 연구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변인은 대체로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계화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주부의 연령, 연간농가소득과 가족형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간농가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집단, 핵가족 집단의 40대 주부가 가사노동을 기계화하려는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핵가족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구성이 단순하고 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사노동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

구 분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집 단 화			상 품 화			기 계 화			전 체		
		M	F/t	DMR	M	F/t	DMR	M	F/t	DMR	M	F/t	DMR
연 령	39세 이하	1.90			2.40			2.44	5.38	A	2.25		A
	40-49세	2.00	0.81		2.49	0.87		2.81	***	B	2.43	3.21	B
	50세 이상	2.06			2.53			2.68		AB	2.44	**	B
자녀수	1-2명	2.11			2.48			2.81			2.46		
	3명	1.99	0.88		2.43	0.80		2.69	0.44		2.37	0.42	
	4명 이상	1.93			2.53			2.66			2.38		
농촌 거주 연수	15년 이하	2.01			2.50			2.67			2.39		
	16-35년	1.94	0.28		2.42	0.54		2.65	0.08		2.34	0.22	
	36년 이상	1.93			2.47			2.71			2.38		
연간 농가 소득	1,000만원 미만	1.94	3.60	A	2.39	3.56	A	2.55	5.86	A	2.30	6.71	A
	1,000-2,999만원	1.92	**	A	2.50	**	AB	2.74	***	A	2.38	***	A
	3,000만원 이상	2.24		B	2.65		B	3.00		B	2.63		B
직업 유무	있다	1.97			2.57	2.90		2.70	0.18		2.41	0.82	
	없다	2.00	-0.39		2.37	***		2.69			2.36		
농업 여부	농가	1.89	-2.71		2.43	-1.56		2.65	-1.28		2.33	-2.27	
	비농가	2.12	***		2.54			2.77			2.47		
교육 수준	중학교졸업 이하	1.98			2.42	-1.65		2.66	-0.88		2.36	-1.11	
	고등학교졸업 이상	1.99	-0.07		2.54	*		2.74			2.43		
가족 형태	핵가족	1.97			2.46	-0.56		2.79	2.76		2.41	1.04	
	확대가족	1.97	0.28		2.50			2.51	***		2.33		

* p<.10, ** p<.05, *** p<.01
DM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5〉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사회화 실태	1.00							
집단화 실태	.71***	1.00						
상품화 실태	.63***	.21***	1.00					
기계화 실태	.75***	.31***	.17***	1.00				
사회화 기대	.50***	.45***	.20***	.33***	1.00			
집단화 기대	.32***	.34***	.11*	.18***	.77***	1.00		
상품화 기대	.40***	.38***	.17***	.26***	.71***	.38***	1.00	
기계화 기대	.41***	.31***	.20***	.31***	.76***	.37***	.35***	1.00

* $p < .10$, ** $p < .05$, *** $p < .01$

수행시간의 효율성이 작아지므로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의 상관관계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이 전반적으로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의 하위영역인 집단화, 상품화, 기계화가 높은 주부들은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대 역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노동 사회화의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상품화 실태와 집단화 기대는 다소 적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화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이용의 편리도가 낮은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는 농촌주부의 제반 여건 그리고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부 스스로가 가사노동을 간소화하려고 할 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화 기대도 증가한다고 본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를 통하여 사회화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

에 대한 예측을 사회화 기대로 조사함으로써 농촌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는 평균 2.97로서 중간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 사회화의 하위영역인 집단화에서 기대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고, 생활권이 농촌에 한정되어 있으면서 일꾼들의 새참이나 점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 등의 편의 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특히 농번기에 마을의 공동조합이나 단체급식 기관을 통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고, 마을공동 세탁장을 설치하여 농촌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는 농촌거주년수, 연간농가소득, 직업유무, 농업여부, 교육수준과 같은 변인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의 하위영역 중에서 집단화는 상품화, 기계화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반면 농촌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장날이나 필요에 따라 근처 도시로 나가 구매하므로 생활필수품이나 공산품은 상품화가 보편화

되어 있다. 기계화는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보다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농촌가정에서 기기 보유율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이로 볼 때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는 농촌주부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므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가정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 연간농가 소득으로 40-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연간농가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 별로 보면, 집단화 기대는 연간농가 소득과 농업여부가, 상품화 기대는 연간농가 소득, 직업유무와 교육수준이, 기계화 기대는 주부의 연령, 연간농가 소득과 가족형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농촌주부들은 노후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공적지원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구매·취사 등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4.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농촌주부의 사회화 정도가 높을수록 기대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화를 시도해 본 주부들이 사회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사노동 합리화를 위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구혜령·양순미(1996), 농촌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27-138.
- 2) 김귀관(1991),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영인·김기숙(1992), 충남지역 농어촌의 부업

시설과 식사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3, 37-44.

- 4) 김인숙·최은숙(1993),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생활의 질 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13-26.
- 5) 농림부(1995), 농업 총조사.
- 6) 농촌진흥청(1994), 농촌생활지표.
- 7) 문숙재·홍성희(1988),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53-169.
- 8) 박봉순(1995),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9) 박선화·채옥희(1996), 농촌주부의 가정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1), 69-80.
- 10) 백유진(1994),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식생활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송영미(1992), 취업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사회화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우경옥(1991),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 실태 및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윤소영(1990), 농촌주부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덕성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윤영희·박미석(1997),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본 가사노동 사회화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101-115.
- 15)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 학위논문.
- 16) 이기영·구혜령(1997), 가사노동 사회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33-44.
- 17) 이기영·구혜령(1999), 가사노동 사회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67-177.
- 18) 이기춘·이은영·이기영·황인경·김민자·김영옥(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 행태연구: 서울

- 시 가계의 의·식·주관련 상품대체와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 115-132.
- 19) 이미숙(1990),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이은주(1991), 가사노동 사회화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이정우·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적응력 및 가사노동 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 22) 정연주(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3) 정지영(1991),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채옥희(1991),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3-130.
- 25) 통계청(1999), 1998년도 농업기본 통계조사결과.
- 26) 한경미(1997a),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가정복지 대책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43-154.
- 27) 한경미(1997b), 전남지역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의식 및 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6), 11-125.
- 28) 한국여성개발원(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99연구보고서.
- 29) 허성미(1994),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0) 경향신문(1999. 5. 15), 일본 여성단체 이에노히카리(家光)의 조사.
- 31) 세계일보(2000. 4. 18), 미국 식탁 포장요리 46% 차지.